

# 02

## 유럽의 사회적기업 부문 : 개요

- 2.1 사회적기업 부문의 정의
- 2.2 사회적기업 부문의 특징
- 2.3 사회적기업의 법적 형태
- 2.4 사회적기업의 조직 및 경영상의 특징
- 2.5 현 상황과 향후 전망



## 2.1 사회적기업 부문의 정의

유럽 전역에 걸쳐 사회적기업의 개념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드물다. 사회적기업의 성격을 법적으로 규정한 국가도 소수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영국 정부가 이 부문의 협조를 얻어 정의한 **사회적기업의 공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기업이란 기본적으로 사회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주주와 소유주를 위해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욕구에 따라 운영되기도는, 원칙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위해 그 수익금을 사업 또는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기업이다.”

이러한 정의는 일반적인 편이며, 이 특수한 형태의 기업에 대한 인풋(예 :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적 목표로 여겨지는 아웃풋(예 : 특정한 요구를 충족하는 재화와 용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영국 이외에도 벨기에(사회적 통합을 위한 연방정부서비스에 의거), 핀란드(사회적기업법 2003, 2004년부터 집행), 라트비아(사회적기업법), 리투아니아(사회적기업법, 2004년 6월부터 집행, 사회보장노동부 초안 작성) 등에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식 정의가 있다. 벨기에의 공식 정의는 사회적기업이 (일정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요구)를 충족시키고 특정 고객 집단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핀란드와 리투아니아의 공식 정의는 사회적기업

이 고용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특히 상업적 원칙에 따라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장애인과 장기 실업자들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편이다. 라트비아의 정의는 인풋이나 아웃풋, 어느 것도 강조하지 않지만, 사회적기업의 법적 형태를 협회, 재단, 또는 종교단체로 제한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 일반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의견은 사회적기업은 저사용 자원을 파악하여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은 다른 종류의 가치 창출, 즉 경제 활동을 좌우하는 공유 가치, 관계 네트워크, 사회적 자본을 창출하고 이에 투자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돕는다.

키프로스에는 공식 정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영리단체를 위한 정부 위원회가 사회적기업에 EMES 개념(본 보고서의 제1장 참조)을 적용하였으며, 덴마크에서는 사회적기업으로 간주되는 조직들은 EMES 정의와 거의 유사하다.

나머지 조사 대상국에서는 사회적기업의 개념에 관한 간결한 공식 정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기업을 설명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정의는 주로 각국의 해당 분야에서 시행된 여러 연구에 의거한 것이다. 예를 들어, 헝가리와 루마니아에서는 영국에서 사용되는 정의가 사회적기업 부문을 설명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네덜란드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암묵적으로, 사회적기업은 기본적으로 소외계층을 노동시장에 포함시키고 시장가격으로 판매할 재화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달리 대부분의 기타 국가에서는

사회적기업의 활동 범위가 다소 넓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조사 대상 국가에서 ‘사회적기업’ 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제시한다.

- 사회적 목표를 충족한다.
- 거래 수입이 있다.
- 도움이 필요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 여러 가지 법적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 자발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행한다.
-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수익을 재투자한다.
- 공적 자금을 지원 받을 수도 있다.

유럽 여러 국가에서 사회적기업의 개념에 대해 단일하고 간결한 정의를 인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었지만, 사회적기업의 형태는 조사 대상국 거의 모두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다만 터키의 경우, 협회와 자선재단은 존재하지만 사회적기업은 전혀 생소한 개념인 것 같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였던 나라에서는 오랫동안 복지를 국가가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 왔기 때문에 경제적 위험을 안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개념이 다소 생소한 편이다.

## 2.2 사회적기업 부문의 특징

역사를 되돌아볼 때, 사회적 경제는 새로운 사회적 요구의 충족 필요성이 대두된 산업사회와 함께 태동한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협동조합의 설립은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다. 자립(self-help)에 대한 이 새로운 접근법은 교회의 자선이나 국왕의 기부와는 다른 새로운 시도였다. 협동조합은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포르투갈, 영국 등 서유럽 뿐만 아니라 중앙 및 동유럽 여러 국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동유럽의 경우, 사회주의 시절에 자원봉사 부문의 발전이 중지되었고 민간 협동조합도 현저하게 힘을 잃었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은 오늘날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1989년 이후 정부가 사회적 부문에서 급격하게 손을 떼면서 생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 다음으로, 폴란드가 2006년 4월 27일에 사회적 협동조합법을 시행하여, 사회적 배제로 위협받고 있는 계층의 활성화와 포용에 중점을 두고 사회적 고용 정책의 기능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북유럽과 중부 유럽 여러 국가의 소위 사회적 시장경제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특히 소비자 협동조합이 발전할 수 있었고, 사회적기업의 개념은 이제 공적 책임을 민간 부문과 소위 '제3섹터'에 아웃소싱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편이다. 지난 20세기를 통해, 강력하고 중앙집권적인 국가가 스칸디나비아의 사회적 발전 모델이 되었다. 복지국가 체제는

사회적 관심과 요구를 제공하고 통제하며 책임지는 데 있어 효과적인 것으로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전반적인 국제적 변화와 인구 문제에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개개인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르웨이에서는 사회적기업가정신과 사회적기업이 기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와 현대 사회의 더욱 개인화된 요구 사이의 차이를 좁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유럽에서는 사회적 부문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예를 들어, 교회, 국가, 시장)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을 뿐 아니라, **장기 실업자나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에 통합 또는 재통합하는 것이 현재 여러 국가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요 사안이 되고 있음**에 따라 사회적 부문이 다루어야 할 요구도 달라진 것이 사실이다.

현재 영국은 본 연구의 조사 대상국 중에서 사회적기업 부문이 가장 발전된 국가임이 틀림없다. 영국에서는 국가의 전반적 경제에 대한 사회적기업의 중요도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어 왔다. 영국은 정부가 사회적기업의 개념을 간결하게 정의하고 국가적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정부 내의 사회적기업 기구를 설치하고 사회적기업 담당 차관을 두는 등 완전한 인프라를 구축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발트 제국과 터키에서는 사회적기업의 개념이 매우 생소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에스토니아는 이제 막 영국을 모델로 삼고 있으며, 리투아니아는 2004년 사회적기업법을 시행하였다. 이들 국가에서는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활동이 협회와 자선 재단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터키의 이러한 단체 중 일부는 매우 큰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전국

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반면, 대다수의 협회는 일반적으로 취약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의해 설립된다. EU의 추진으로 말미암아 특히 중유럽과 동유럽 국가에서의 사회적 부문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고 현재도 변화가 일고 있다.

소수의 국제 기구(예 : 적십자, 교황청 산하 카톨릭 자선단체인 Caritas)나 전국적 조직체(예 : 노르웨이의 ASVL)와 달리, 사회적기업 — 또는 유사한 개념하에 활동하는 기업 — 은 전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편**이며 대부분의 경우 **해당 지역 내**에서 활동한다. 근로자가 50인 이하이면 관계가 익명성을 갖지 않으면서도, 조직의 구조가 단순하고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쉽다.

요즘 유럽 전역에서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에 통합 또는 재통합하거나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보호작업장이 정책 수립자들에게 가장 주목받는 **사회적기업 형태**인 것 같다. 과거 노동시장의 발전으로 사람들이 이 시장의 압력에 대처하는 능력을 갖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전통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들도 있고, 영구적으로 재정적 자립을 할 수 있는 직업을 창출하는 기업도 있다. 또한 직업 훈련도 제공한다.

아웃풋 측면에서 보면, 현재 점점 주목을 받고 있는(특히 동유럽과 남유럽 국가에서) 사회적기업은 가난한 지방 지역사회나 소수민족에게 도움을 주거나 지역 개발을 촉진하는 기업들이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사회적기업의 유형은 아동과 노인을 돌보는 기업들이다. 많은 국가에서 소위 비정부단체(NGO)나 비영리단체(NPO)가 가장 우세한 사

회적 서비스 제공자로 활동하고 있다.

노동시장통합 기업은 행정, 사무, 관광, 공예, 무역, 식당 등 다양한 **활동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합 고용될 사람은 해당 분야의 직업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 조건만 충족시키면 된다. 장애인을 위한 보호작업장은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자들은 주로 보건 또는 개인 서비스 분야에서 활동한다.

공식적 정의가 부족하고, 거의 모든 조사 대상국에서 사회적기업을 다양한 법적 형태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통계 자료**는, 혹시 있더라도, 보통 해당 국가의 사회적기업 부문의 일부만 포함한다. 각국의 통계청이 제공한 데이터는 법적 형태별(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협회) 자료나 NACE(여기에는 ‘사회적기업’이라는 범주가 존재하지 않음)에 따른 부문별 자료, 또는 제3섹터(여기에는 기업가정신이 없는 조직체도 포함된다)에 대한 자료만 제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적기업 부문에 관한 데이터를 총괄 기구나 전문 리서치 기관(예를 들면, 키프러스의 전국자원봉사관리위원회나 루마니아의 민간사회발전재단)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에 관한 완전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 리투아니아, 핀란드 같은 소수 국가에 불과하다.

다음은 사회적기업에 관한 통계 자료를 확보하는 어려움을 묘사하기 위해 인용한 예이다.

- 벨기에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각 지역의 관할이며, 각 지역별로 다

른 정의를 사용한다. 더구나 사회적기업이 다양한 법적 형태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 불가리아에는 사회지원청 내에 사회적 서비스 제공업체의 등록부가 있어서, 일차적인 통계 참조 자료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등록 업체의 10% 미만이 상업적 회사이고 나머지는 NGO이다.
- 프랑스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수를 추산하기 위해, 협동조합, 상호 회사, 협회, 재단 등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법적 형태에 따른 데이터를 조사한다. 이러한 절차는 독일, 그리스, 슬로바키아, 스웨덴 등의 많은 국가에서 이용한다.
- 헝가리와 이탈리아의 사회적기업에 관한 통계는 통계청의 NPO 데이터베이스를 출발점으로 하여 여러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
- 아일랜드에는 고용교육청(FÁS)이 운영하는 사회적 경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부문에 관한 추산치는 FÁS가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다.
- 몰타 통계청은 소위 '사회 복지 지향 NGO(SWNGO)'에 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 폴란드에서는 2006년에 통계 목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등록청이 설립되었다.